

## 電氣用品輸出에 앞장 선

### (株) 新陽電氣



이번 호 業界探訪者는 電氣用品製造業으로 国内基盤을 차분히 다져가며 中東 및 東南亞등지로 輸出을 활발히 展開하여 國際競争力을 強化해 가고 있는 (株) 新陽電氣의 金暻鎬社長을 만났다.

創意·信用·奉仕라는 社訓을 내걸고 1967年 법랑 및 석유난로를 製造하므로써 業界에 投身한 以來, 1970年代에 들어와 本格的인 電氣用品製造에 착수한 同社의 金暻鎬社長은 서울工大 機械科出身의 엔지니어이다.

産業이 發展하고 GNP가 增加함에 따라 家庭用機器의 需要도 增加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로 이제 (株) 新陽電氣는 전기밥솥, 전자자, 전기후라이팬, 전기냄비, 전기난로, 커피포트등 製品도 多樣하다.

특히 同社는 우리나라의 工業수준이 상당한 만큼 이제는 消費者의 기호에 맞는 製品을 生産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며 이에 부응하여 全国各地에 A/S Center 와 巡廻 A/S Center 를 設置, 이를 최대한 活用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昨年度부터 輸出을 시작, 전기난로도 15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中東 및 東南亞로 그 市場을 擴大해 나가고 있다 한다.

아울러 1980년에는 国内 最初로 방콕에, Shinyang Koralex Industrial Co., Ltd. 란 合

作会社를 設立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아로도 合作会社를 進出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今年엔 Vertical Energy Saving Control 이란 전기난로를 試作, 美国市場에 進出하려 하고 있으며 이 製品은 UL에 檢査를 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市場의 多邊化와 品質의 高級化를 위해 海外旅行을 자주한다는 金社長은 「國際的인 眼目과 多角的인 創案이 없으면 事業이 곤란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國際競争力에 견디어 낼 수 있는 製品을 찾아낸다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기를 잊지 않았다.

협소한 영등포의 현재 공장 이외에도 반월에 3천평의 垆地를 확보하고 있다는 金社長은 美国과의 合作会社設立을 은밀히 진행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生産量은 各種 製品을 합쳐 月間 6만대에 이른다고 밝힌 그는 300여명의 종업원이 TQC 運動을 활발히 展開, 이를 活性化시키고 있다 하며 이와 병행하여 標準化, 規格化運動에 積極 参与하여 品質向上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金暻鎬社長은 電氣用品製造協會가 韓國電子工業振興會로 吸收·統合 됨에따라 電子工業振興會의 理事로 選任된 바 있다.